

천손민족 한민족 DNA에 숨겨진 비밀

한민족(韓民族)이 천손민족(天孫民族)이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천손민족이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진 바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거주하는 여러 민족 가운데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 천손민족이라면, 천손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은밀한 계획을 세우고 역사하심을 상정할 수 있겠다.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고 인쇄천(人乃天)이라는 고유한 사상이 한민족의 조상 대대로 전해져 왔다는 점이 천손민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숙원 문제는 무너진 에덴동산 회복

하나님의 숙원 문제는 무너진 에덴동산을 회복하는 것이었는데, 에덴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주인공 구세주를 키워야만 했다. 그래서 구세주가 나올 만한 민족을 선택해야만 했고 그것이 이른바 선민(選民)이요 천손민족이다. 방탄소년단의 노래 『DNA』에 나오는 가사 가운데 '내 혈관 속 DNA가 말해 줘'라는 구절이 의미하는 것처럼, 천손민족의 DNA는 태초부터 구상한 것으로서 전 지구적 대홍수에서 살아남아 쎌의 자손으로 이어져 단지파의 한민족에 이르러 마침내 불멸의 유전자를 가진 '이긴 피'의 권세로 완성된 메시아를 키워냈다.

한민족의 고대사는 곧 인류사의 중심이 된다. 전 지구적 대홍수는 히브리 성경의 연대기에 따르면 BC 2654년경에 일어났다고 한다. 대홍수 이전은 아담과 해와로부터 노아 육백 세까지 1666년이 흘렀다. 노아가 앞으로 닥칠 대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 때는 인류의 시조 아담에서 에녹까지는 들어가셨고 에녹의 아들 므두셀라가 지상의 최고 연장자로 생존하였고 므두셀라는 노아의 조부이다. 노아의 조부 므두셀라는 대홍수가 발생하는 해에 969세의 나이로 임종하여 장사지냈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대홍수가 발생하기 5년 전에 임종했는데 향년 777세였다.

구약성서 창세기 4장의 내용에 근거하면, 아담의 아들 가인 때부터 성(城)을 축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대홍수 발생 삼사백 년 전부터는 라멕의 자손들에 의한 문명의 비약적인 발전을 엿볼 수 있다. 가족을 치는 농장 그리고 수급



노아 방주에 매달은 거대한 돌. 열 개 안팎으로 추산된다 (뒷편에 눈 덮힌 산이 아라랏산)

과 통소를 창안하여 연주하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동철기 시대(銅鐵器 時代)를 열었다.

마귀의 대홍수 계락을 감지한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 노아를 주창

노아는 수급과 같은 현악기를 제작하는 기술과 통소와 같은 관악기를 제작하는 기술을 가졌다. 특수한 줄을 만드는 기술과 구멍을 뚫는 특수한 기구가 있었기에, 노아 방주의 거대한 돌 닻에는 줄을 끼워 묶을 수 있는 구멍이 뚫어져 있다. 구멍을 뚫는 특수한 기구를 갖출 수 있게 된 배경은, 노아가 급속으로 각종 날카로운 기계들을 제작하는 대장장이의 조상 두발가인의 누이 나야미를 아내로 삼았기에 가능했다. 이로써 노아는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구비 조건을 다 갖춘 셈이 되었다.

통소와 수급의 관현악으로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아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 소리를 들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지상에 편만한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의인이 출현한 것으로 보고 물로써 세상을 쓸어버릴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찬송은 마귀를 죽이는 꼭조 있는

기도라고 이긴자 메시아께서 말씀하신 바 있다. 마귀의 대홍수 계락을 감지한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의인 노아를 주창하셨다.

노아 나이 480세에서 600세까지 120년은 대홍수를 대비하던 시기였다. 480세에서 500세까지 20년간은 "지상의 사람들이여, 술에 취해 강포를 행하지 말며 정욕에 불타서 시집 장가가는 패역한 행위를 삼가라!"하고 계몽하는 데 주력하였다. 지상의 사람들이 노아의 계몽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대를 잇기 위해 당대에 의인 노아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명하였다. 노아 500세부터 600세까지 약 100년 동안 본격적으로 산중턱에서 방주를 짓게 되었다.

방주 건조(조립) 기간은 불과 5년

그 당시에는 주로 큰 강가의 평지에서 진흙으로 집을 지었는데, 높은 산에서 집을 짓게 되면 당연히 진흙을 구할 수 없기에, 벌목한 나무로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마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 마귀가 물로써 세상 사람들을 모조리 수장시켜 남김없이 다 죽이려는 계획을 내다보신 하나님께서는 노아

로 하여금 물에 뜨는 배를 만드는 일을 숨겨야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설계를 비밀리에 노아에게만 맡겼다. 방주는 그 형태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배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는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고 100여 년 동안은 방주의 설계 도면에 따라 정밀하게 나무를 잘라 보관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리고 대홍수 발생 직전의 5년간은 지금까지 준비한 나무를 운반하여 조립하는 방식으로 못질하며 동시에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게 했다. 이스라엘의 역사서 '야살의 책'에서는 노아 565세에 방주 제작에 들어가 노아 600세에 완성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방주 건조 기간은 불과 5년이었다.

노아 600세에 대홍수가 발생하고 지구상에 편만했던 수십억의 인류가 수장되고 노아의 여덟 식구만 방주를 타고 생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물이 빠지고 물이 드러날 때 방주는 터키의 아라랏산에 안착하였다. 바로 이때(BC 2654년경)부터 인류 문화가 다시 시작되고 아라랏산을 기점으로 노아의 세 아들, 쎌와 함과 야벳이 낳은 자식들이 씨족을 이루고 각기 삶의 터전을 찾아 이주하게 된다. 노아 방주가 대홍수 이전의 동철기 문명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대홍수 이후에 석기 시대란 있을 수 없다.

한민족의 뿌리는 지중해 연안에서 동쪽으로 이주해온 도래인이다

고조선 국가의 구성원이었던 한민족의 뿌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세 아들 중에 장자 쎌에 이르게 된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초기국가 고조선 백성들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터키에서 해돋는 동방 땅 끝 모퉁이까지 이주해온 도래인들임에 분명하다. 물론 대홍수가 끝나고 곧 바로 터키에서 한반도로 이주한 것이 아니라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선민 DNA에 축적하고 애굽 고원에서 이집트 문명을 경험하는 등 1400년간 유리방항하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소라 땅에서 동으로 동으로 이주하여 한반도에 도착하여 고조선 국가를 설립한 것이다.*

백태선 기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45>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비결”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갖고 사는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초로 하나님을 바라봐도 되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을 가져도 되고, 하나님을 고도로 사모해도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이 중 한 가지만 실천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다.

초초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지게 되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지면 형제의 죄도 내 죄로 여겨지고 형제의 사정도 내 사정으로 여겨지면서 하나님을 고도로 사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가지를 제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백 가지 천 가지가 그대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되는 비결의 마음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실천에 달린 것이다.*

이기는 삶

희망 대통령

2022년 10월 31일 루이스 아나시우 톨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당선인이 함박웃음을 짓는 사진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었다. 톨라 대통령 당선인은 세계 최초의 3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톨라는 브라질 북동부 오지에서 태어났다. 5살 때는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형들과 새 사냥을 나가야 했고 12살 때부터 청소부로 취직해 생계를 이어야 했다. 14살 때는 철공소 직공으로 살았지만 형편이 나아지기는 역부족이었다. 12남매와 함께 그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 결단력이 강했다. 투쟁을 잘하지만 거친 언행이나 시러 갖지 못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격렬하고 폭력적인 시위는 언제나 반대했다. 강성 노동운동가의 모습이 짙어서 2003년 그가 브라질의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 월가에서 한 환경이었다. 톨라의 상황은 1억 5천만 이상의 절대 극빈자를 대변하는 모습이였다.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이었던 톨라가 교육을 받았을 리 만무하다. 특히 아버지가 문맹이였기에 공부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1980년대 브라질은 두 차례나 외채를 갚지 못하겠다고 자포자기(自暴自棄)한 상태가 계속됐다. 하지만 갚겠다고 하거나 원금만 주겠다고 버티는 식이였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통화 가치가 열을 사이 30%나 추락했고, 덩달아 실업률은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치솟았다.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브라질에 등을 돌렸다.

톨라 대통령은 빈민구제 정책을 힘을 쏟았고,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 가장 처음 내놓은 정책은 가정에 배고픔을 없애고 굶주린 가정이 하나도 없게 한다는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그는 대통령으로 출마하기 전 극빈층의 대변인으로 노동운동을 펼쳤다. 노동 활동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노동위원

장직에 오르고 노동자 계층의 엘리트들이 모인 곳에서 전국 노조 운동의 잣대로 떠오를 만큼 열정적으로 노조 운동을 펼쳤다. 군정 시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하루종일 고문을 받기도 했고 해외여행도 제지당할 만큼 거칠고 험난한 삶을 살아오다 보니 투쟁을 잘하고 신념과 결단력이 강했다. 투쟁을 잘하지만 거친 언행이나 시러 갖지 못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격렬하고 폭력적인 시위는 언제나 반대했다. 강성 노동운동가의 모습이 짙어서 2003년 그가 브라질의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 월가에서 한 환경이었다. 톨라의 상황은 1억 5천만 이상의 절대 극빈자를 대변하는 모습이였다.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이었던 톨라가 교육을 받았을 리 만무하다. 특히 아버지가 문맹이였기에 공부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1980년대 브라질은 두 차례나 외채를 갚지 못하겠다고 자포자기(自暴自棄)한 상태가 계속됐다. 하지만 갚겠다고 하거나 원금만 주겠다고 버티는 식이였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통화 가치가 열을 사이 30%나 추락했고, 덩달아 실업률은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치솟았다.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브라질에 등을 돌렸다.

톨라 대통령은 빈민구제 정책을 힘을 쏟았고,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 가장 처음 내놓은 정책은 가정에 배고픔을 없애고 굶주린 가정이 하나도 없게 한다는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그는 대통령으로 출마하기 전 극빈층의 대변인으로 노동운동을 펼쳤다. 노동 활동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노동위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셈'의 직계혈통을 계승한 선민

창세 이래로 선민사상(選民思想)에 대한 깊은 내막(內幕)을 정확히 직시하고 올바르게 알려준 사람이 없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민사상(選民思想)에 대한 상식으로 다음과 같다. 두산백과에서 일부 발췌하면, "넓은 뜻으로는 어떤 민족이나 사람들이 자기들만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상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유대교의 이스라엘 선민사상이다(이하 줄임)."

하나님이 선민(이스라엘 민족)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고 약속

선민(選民)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리하여 유대민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여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과의 접촉을 꺼리며 일집아보았기에 이방인과 동거하여 아이를 낳으면 모조리 죽였는데 집단으로 돌을 집어들어 쳐서 죽였다고 한다. 이러한 관습을 지키던 유대민족에서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출중한 인물이 나와서 왕조시대를 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이 이방 여자를 취하였지만 유대율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유대인 중심의 천년왕국이 쇠하여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할 때, 로마 병정들은 이스라엘의 여자들을 닦치는 대로 겁탈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세계사에서 증명하듯이 어느 전쟁에서도 지게 되면 남자들은 싸우다가 무수히 죽어가고 여자들은 적국의 군인들에 의해 겁탈당하는 비참한 지경에 처하는 것이다. 일례로 당시 대제

사장의 딸이었던 마리아는 성소를 점령한 로마 병정 관텔라에 의해 강간당하여 사생아를 잉태하였는데, 대제사장은 시집가지 않은 딸의 임신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면 유대 관습에 의한 돌팔매질로 딸을 잃게 되고 또한 그 자신의 직분도 내려놓아야 하기에, 이렇게 될 사태를 모면하고자 딸의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고, 이미 배가 부른 산모가 된 딸이 체내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상태에 있다고 말해도 들어줄 만한 배우지도 못한 신분층에 있는 순진한 사람을 사위로 골랐다고 한다.[참조 _ http://armymission.org/commonview.htm]

아브라함의 집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방인 로마 병정들이 난입할 때, 야훼의 전능으로 모조리 죽게 될 것이라고 지경에 처하는 것이다. 일례로 당시 대제

와 유대의 율법학자들이 지켜보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로마 병정들이 아무런 사고도 당하지 않고 성전의 성소를 유린하고 성전 안에 있는 각종 성물과 보배를 탈취하여 나오는 광경을 보고 경악했다.

아브라함이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요 이방인들이 믿는 신들은 전부 우상으로 치부하고 오직 아브라함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 유대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에 영향을 받아 다신교를 수용하는 로마인들에 의해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하고, 아브라함의 전지전능성에 대한 회의감(懷疑感)과 더불어 그들의 앞날이 캄캄하기만 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책 모세오경에서 모세 자신이 말하

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신명기 18장 15절)"라는 구절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출현하여, 마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구원한 구세주 모세와 같이, 지금 당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구원받게 되리라는 소망을 가졌고 그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메시아의 지상 강림을 기다리는 유대교가 발생하여 오늘날까지 오실 메시아를 염원하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 정해진 선민은 직계 혈통으로 계승되고 있으나 알고 보면 무려 대상이 아니다

그럼 선민사상과 관련된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뜻깊은 일이었다. 아득한 옛날에 지상의 높은 산들을 덮을 정도의 전지구적 대홍수가 발생하여 당시 살았던 수십 억의 사람들이 모조리 익사했다. 단지 노아의 여덟식구만이 대홍수를 대비하여 만든 '방주'라고 불리는 큰 배를 타고 구사일생하는 데 성공하였다.

3면에 계속